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4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2호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시찰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1일 조선인민군 제319군부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비서들과 리용철, 장성택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의 훈련기재와 시설들을 돌아 보신 다음 관람대에 오르시여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육탄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70년에 걸치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강철로 다져진 이 무적의 대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311호닭공장을 돌아 보시고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최근년간 닭공장, 메기공장, 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장들이 도처에 수많이 건설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벌써 크게 은을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조국의 먼 래일을 내다 보며 강성대국의 기틀을 하나하나 실속 있게 쌓아 올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 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소목장, 염소목장과 메기공장, 양어장을 더 많이 건설하고 이미 마련된 축산 및 양어기지들을 실속 있게 운영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하루육리 마련해 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12일

최근동정

1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시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

세기와 더불어

4 4장 4절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칭송

6 바닷가초소에서 (3)
6 인류가 울었다
6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신념의 기둥

7

한국민족민주전선

7 일본에서 반민족망언을 늘어놓은 이회창
7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3월 12일
8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 나서자
8 한총련, 그 이름 불러
9 정치문맹자, 이회창

광고

15 신입생들의 대학입학을 축하하며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2)

조선중앙통신

10 주체91, 3월 12일 보도
11 우리 군대제일주의 – 공동사설 해설 주체91, 1월 29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아리랑뉴스

13

13 김원웅의원, ≪한나라당 후보교체론≫ 제기
13 친일행위 진상규명 법제화 나서
13 공군대령 ≪외압≫ 육성녹음 공개
13 이북TV, CIA 보고서에 진실이 담겨 있다
14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14 미국의 이라크 공격, 국제사회 반대 직면
14 노동계 지방선거 참여 본격화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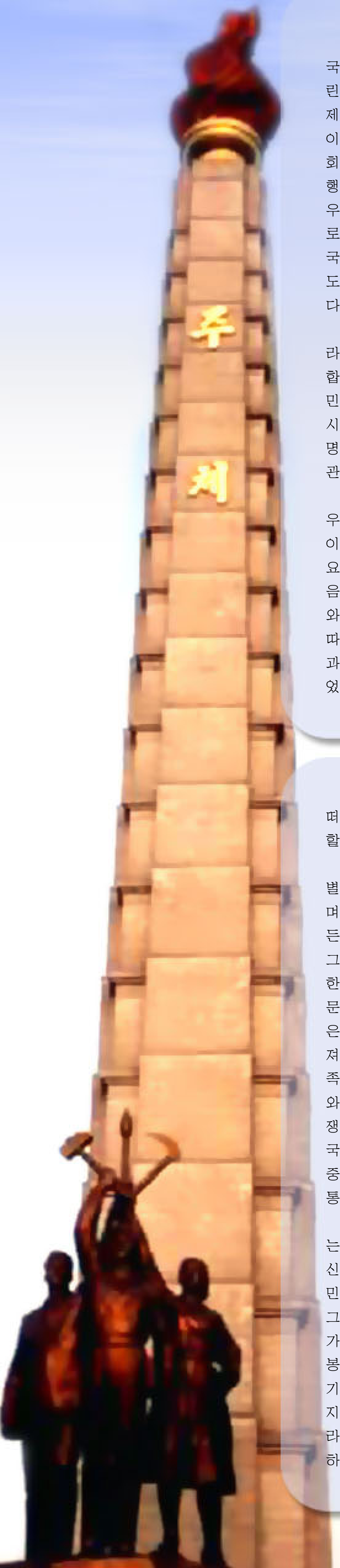
15 합법적인 대중조직, 합법적인 대중운동에 대하여 (1)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2)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8월 1일



지난해에 조국해방 45돌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8·15를 계기로 제2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날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 가지 민족공동의 통일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예정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조선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 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과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장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신념화된 우리의 철학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 속에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여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정입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였습니다.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는 놀고먹는 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한갖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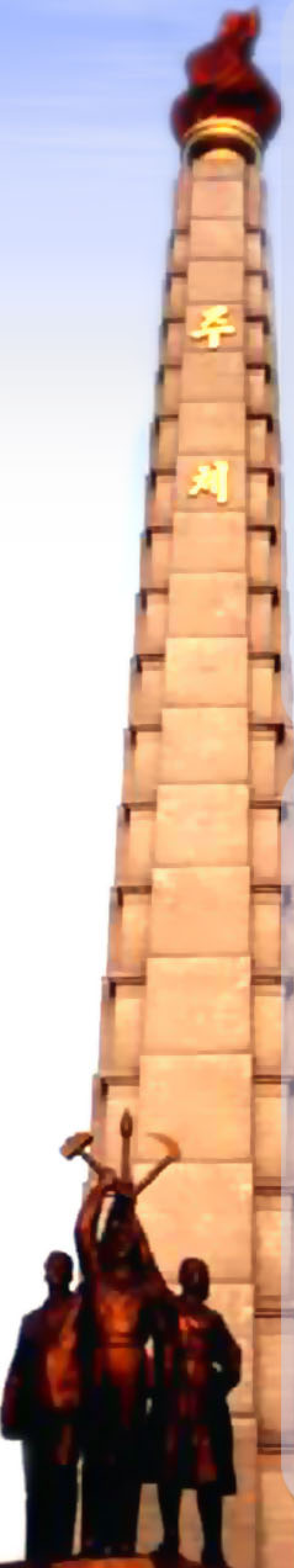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유구한 세월 한강토위에서 한핏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애국심이 강하고 자주정신이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의 혁명활동은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나는 민족의 주체, 혁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한평생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만이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다 같이 옹호하며 우리 나라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애국자인 동시에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어 나가는 현 역사발전단계에서는 마땅히 민족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모두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할 뿐 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온 민족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인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지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민족적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투쟁한 여기에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혈연적으로 연결되고 모든 반일애국역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습니다. 조국광복회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이 모두 결속되였습니다.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체 인민이 다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 뜻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단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이 뜻을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것은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는 당시 민족 앞에 절박하게 나섰던 당면한 구국대책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서 이승만의 직계 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의 당수였던 김구도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김구로 말하면 그는 해방전에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원쑤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같은 민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공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결국 연공연합의 길에 나섰습니다. 김구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으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남북연석회의에서 연설을 잘하였으며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암살되였습니다.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누구나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민족적 단합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상당한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 · 15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범민족통일음악회도 열리고 북과 남의 통일축구경기와 예술축제도 진행되였으며 올해에는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가지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공동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민족적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고조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다같이 기쁨을 느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온 겨레의 마음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온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다, 통일은 완료형이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뜻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연방제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강제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가장 절실한 민족공동의 이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족내부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모두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새 조국건설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4.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카륜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930년 7월 3일 우리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온 사실은 여러해전에 공개되었고 그 모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갔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맑스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쟁에서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까지도 찬양되고 있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류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을 당에 대한 견해와 립장이 그릇된데서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로동운동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기적 변혁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련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5년 4월이였다. 각국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속속 출현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정당이 창건되였다는 사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 추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고 풍부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며 합법칙적 산물이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로동운동을 령도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되는 새로운 페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이 존재하는 기간 6.10만세시위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도하며 민족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으로 신간회와 같은 대중단체들도 만들어 반일애국력량을 집결시키는 사업에도 이바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그 령도 밑에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전개된 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하나의 력사적 사변으로서 민족해방운동발전을 일정하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국제공산당에서는 1928년 여름에 제 6차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산당이 국제당대렬에서 제명되였음을 의미하였다. 물론 우리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파쟁을 일삼는 그 상층부에 대하여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였다. 그러나 그 당마저 국제당대렬에서 제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때 국제공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공산주의운동경험도 적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당을 창건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타개해야 하였다. 가장 큰 난점은 공산주의대렬안에 종파주의가 의연히 남아있는 것이였다. 종파주의가 청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당재건운동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분렬된 상태에서 파벌별로 하였다.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렬하게 벌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 수 없었다. 화요파와 엠엘파가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총국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후 서상파가 국내에서 재건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마저 로출되어 많은 당원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가지고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당을 창건하는 데서 제기되였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산당이 제정한 1국1당제원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지방에서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된 것이였다.

국제당은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1국1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1930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조중공산당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공산당 조직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재건운동에 열을 올리던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해체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을 타고 5.30폭동의 불길이 동만을 휩쓸게 되었다.

조선당원이 중국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제는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칙을 놓고 우리 동무들은 열기띤 론쟁을 벌이였다. 국제당의 지령을 무책임한 처사, 리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평가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 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배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울화를 터뜨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나의 립장을 알고 싶어하였다.

나는 국제당이 1국1당제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가 아니며 그 요구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당재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현재의 형편에서 국제당의 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때문에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러니 국제당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주의적 립장이다. 중국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러나 국제당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자적인 당건설을 단념하고 무한정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 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였고 입장이였다.

그러나 그 견해가 1국1당제 원칙에 대한 국제당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1국1당제 원칙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키고 당건설방침을 하루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1930년 6월하순에 쟈쟈툰에서 국제공산당 련락원 김광렬을 만나보았다. 김광렬은 일본에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쏘련에 가있다가 나온 인텔리였는데 우리의 활동구역인 고유수, 오가자, 카륜지방에 많이 와있었다. 련락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국제당과의 련계를 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쏘련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소봉과 리종락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소문과 같이 박식한 사람이였다. 그는 노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쏘련춤도 그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잘 추었으며 연설도 잘하였다. 그때 김광렬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국제당에 가보라, 국제당 할빈련락소에 소개해줄 터이니 거기에 가서 1국1당제원칙에 대하여 토론해보라고 하였다. 김광렬을 만난 후 나는 동무들과 함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론쟁을 거듭하였다.

우리는 1국1당제 원칙의 요구를 한 나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산당이 국제당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한 나라에는 한개 이상의 공산당 중앙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공산당중앙

조선로동당의 시원으로 되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무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에 같은 리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당중앙이 하나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다.

국제당이 1국1당제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리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1국1당제 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운동 내에 여러 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이 1국1당제 원칙을 명시하게 된 것은 또한 적들이 공산주의대렬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국제공산당 규약은 1국1당제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재국의 당에 전당하는 방법은 어떻고 전당 후 그들의 혁명임무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당에 전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론의를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였다.

이런 리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자체의 당 조직을 꾸리를 것이 1국1당제 원칙에 모순된다고까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당의 1국1당제 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석으로 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빚어지고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싸울 권리조차 의문시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국제당의 지시에도 부합되고 조선혁명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과연 없단 말인가.

이런 모색 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 우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을 창건하자는 것이였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조직적 골간의 육성과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 당이 의거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의 구축이 없이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당을 창건할 수 없었다.

나는 종파와 인연이 없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창당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국제당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우리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해나간다면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리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땅안에서 우리의 당중앙을 따로 내와가지고 중국당과 병존하지 않는다면 국제당의 1국1당제 원칙에도 모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여 카륜회의에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고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되었다. 혁명적 당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당이 없으니 단천농민폭동 지도자들은 폭동의 전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하여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었다. 조선에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혁명적 당이 있고 세련된 지도력량이 있었다면 그들이 로자를 쓰면서까지 국제당에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1930년대 초엽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종전의 반일투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투쟁도 초기보다도 비할 바없이 전진하였다. 활동범위는 길림을 벗어나 멀리 동만과 북부조선 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청년학생운동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혁명투쟁은 지하활동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줄을 뻗치었다. 경험이 축적되고 군사정치적 준비가 성숙되면 상비적인 혁명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대부대력량으로 본격적인 유격전쟁을 해야겠는데 공청이 그 령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단체들을 지도한 것은 과도적인 현상이였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였다.

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장악하고 민족해방운동전반을 령도하며 중국당과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당과의 사업도 해야했다.

공청의 간판을 가지고서는 국제당과의 거래도 원만히 할 수 없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 자기 파를 정통파로 자처하면서 승인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국제당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국제당은 조선에서 종파가 청산되기 전에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전위대가 나올 수 없으며 종파를 근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권욕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투쟁에 주의를 돌리었으며 우리와 손잡아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줄을 놓았다.

우리는 여러해동안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새형의 혁명적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았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 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모든 것이 ≪ㅌ·ㄷ≫로부터 시작되었다. ≪ㅌ·ㄷ≫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었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 지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었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운동을 령솔하던 나날에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선행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범하였던 오류들을 극복하고 대중전취와 령도예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 투쟁기풍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한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훗날 우리 당의 넋으로 되고 기개로 되었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것은 카륜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놓은 것이였다. 카륜회의 결정에는 ≪ㅌ·ㄷ≫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되었으며 실패와 좌절의 지층 속에서 오랫동안 갈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 지침으로 되었다.

지도사상, 령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리제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었으며 조선혁명군 대장으로 내정되어있던 리종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었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메터 가량 떨어진 쟈쟈툰 앞벌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6정보가량되는 개버들밭이 펼쳐저있었고 버들밭 가운데로는 무개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학교 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였다. 진명학교로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있었으며 설사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버들밭으로 빠지면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날밤 우리는 밀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서쪽관문에 2중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밭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않는다. 그 개구리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내일 계속)

일화

바닷가초소에서 (3)

배는 어느덧 기슭에서 퍼그나 멀어졌다.

군인들의 사기도 높고 진지위장도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그분께서는 군인들에게 내외정치정세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경각성을 높여 조국의 바다와 해안에 그 어떤 적들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시였으며 사격술을 높여 적함을 단방에 명중시키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시였다.

행복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군인들은 그분께서 함께 바다로 나가보자고 하신 깊은 뜻이 더욱 가슴깊이 안겨왔다.

뭍으로 돌아오신 그분께서는 후방물자 창고들과 식당, 군인들의 병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절인 물고기를 저장해둔 독뚜껑도 열어보시고 층층 당반을 매고 말린 물고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을 보시고는 싸움준비를 잘했다고, 이만하면 군인들의 식생활문제도 마음놓을 수 있겠다고 치하해 주기도 하시였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한낮이 기울기 시작했다.

영도자님께서는 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여기서 전사동무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식당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군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환성을 올리며 어려움을 잊고 그분을 따라 식탁둘레에 모여앉았다.

그분과 함께 온 일군들이 몹시 딱한 표정으로 서있다가 그분께서 거듭 독촉하셔서야 아침에 준비해 가지고 떠났던 식사를 차려놓았다.

빵과 두어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너무도 검소한 그분의 식찬을 보고 나어린 신병들을 물론 지휘관들도 모두 놀랐다. 그리고 이럴줄을 알았더라면 모처럼 오신 영도자님께 식찬이라도 몇가지 따로 만들어 올릴걸 그랬다고 후회막심해 했다.

그러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그분께서는 왜 그러고들 있는가, 어서 와서 앉으라고 하시면서 어서 국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과 취사병들은 더욱 난처해 했다. 온 중대가 먹을 수 있게 큰 가마에 국을 끓였는데 그것을 그분께 올리자니 딱했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영도자님께서는 괜찮다, 전사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라고 해서 왜 못먹겠는가, 우리가 먹어서 안될 음식이라면 응당 전사들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애롭게 웃으시였다.

그분께서는 취사병들이 정히 떠올린 국을 맛보시고 국맛이 참 구수하다고 치하하시고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시면서 군인들이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 철따라 나오는 과일들은 다 맛보는가를 알아보시고 지금은 수박이 한창인데 전사들에게 그런 것도 많이 갖다먹이라고 이르시였다.

정녕 한가정과도 같이 화기애애한 식탁이였다. 영도자가 전사들과 한가마국을 함께 드는 이런 희한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날 바다로 기어드는 적은 바다에서 소멸해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사격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몸소 사격훈련장에 나가시어 여러가지 사격훈련동작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였다.

뜻깊은 시간이 흘러 긴긴 여름해가 서켠으로 기울 무렵 헤어지기 서운해하는 초소 군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영도자님께서는 초소 지휘관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였다.

≪오늘은 바닷가초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 동무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전투준비에서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 전투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알겠습니다. 초소는 염려마십시오.

언제나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조국의 해안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한결같이 힘찬 대답을 올리였다. 동해의 푸른 물결도 군인들의 높뛰는 마음을 안은듯 기슭을 치며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송시

인류가 울었다

박진경

그때 몇 번 만나신적 있는
이남의 한 정계인의 영전에
몸소 화환을 보내주셨다는 그때
그때는 이남이 울었다

화환의 댕기에 빛발치는
≪**김정일**≫ 그 존함 우러르며
숭고한 도덕앞에 울음을 터뜨렸다
고결한 의리앞에 눈물을 쏟았다

허나 이번엔 전 인류가 울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 레닌묘에
경의를 표시하실때
피스카료브묘지의 ≪어머니 - 조국≫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실 때
하바로프스키시의 슬라바광장
무명전사묘를 찾으셨을 때

공산주의도덕의리의 최절정에 서계시는
오 - **김정일**장군님
하늘처럼 우러러 인류는
감동의 눈물을 뿌렸나니
그 눈물의 소나기에 이 행성이 푹 젖었다
도덕의리가 메말랐던 인간세계에
생명의 젖이 흘러내렸다

흠모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신념의 기둥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작들을 탐독하면서 그에 담겨진 심오한 철학적 내용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등 그이의 고전적 노작들은 사람들에게 혁명적 당건설의 원칙과 방도,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이 모든 사상 이론적 해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말아먹게 된다는 것을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그이의 유명한 명제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열쇠를 안겨주었다.

김정일동지의 노작들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 이론적 무기이다.≫(공산당연맹－소련공산당이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걸출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굳게 믿고 그이의 영도 밑에 전진하는 혁명적인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고무를 받으며 우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희망인 사회주의 조선에 대한 공격을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그 위업을 전진시키는 것 은 사회주의 승리의 전세계사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역사의 이 중대한 책임을 한 몸에 지니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를 사상 이론적으로 옹호하시며 노동계급의 수령들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는 역사의 배신자들에게 단호한 사상적 타격을 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사회주의 위력을 떨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식 사회주의 제도로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주고 계신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제국주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고무적 기치이다.

전 세계 혁명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을 따라 배워야 한다.≫(페루좌익혁명동맹 건국집행위원회 총 비서 따니 발레트 로레)

일본에서 이북을 걸고드는 반민족망언을 늘어놓은 이회창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2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을 행각중인 이회창은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북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북이 신뢰가 없다느니 하고 짖어댔습니다. 그리고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보였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까지 밴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민족반역적 작태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때문입니다.

미국 부시정권은 출범후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앞길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온 것이 바로 이회창일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편에 서서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악의에 찬 험담을 일삼았으니 이보다 더한 미국의 충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비호두둔해 나선 것입니다.

부시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은 곧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침략도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두고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이 반북적인 악담을 써가며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노골적으로 비호두둔해 나선 것은 그의 체내에 민족의 피가 아니라 매국배족의 검은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안중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일신의 더러운 집권욕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동족을 걸고 들며 미국 상전에 추파를 던진 사대매국역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역적중의 역적이고 매국노중의 매국노입니다.

가소로운 것은 이회창이 날뛰고 제가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따위 민족반역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양키를 찾아가 미 상전의 대북강경정책 각본을 되받아 외우며 미친듯이 줴쳐대더니 오늘은 또 일본 쪽바리들을 찾아가 혓바닥을 핥으며 동족헐뜯기에 광분하고 있으니 이회창의 행위야말로 온 국민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제 주제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얼간망둥이의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에 미쳐 돌아치는 이회창이 권좌에 올라앉으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우리 민중은 핵참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전 민중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극악한 사대매국노 이회창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방일중인 이회창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4일

반미, 반부쉬투쟁 언급

한민전 평양대표부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각계 민중들속에서 반미반부시투쟁이 힘차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대표는 각계 민중들이 부시방한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벌인 이번 투쟁은 전례없는 반미성전이였다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불청객으로 기어든 부시는 분노한 민중의 대중적 항거가 두려워 3중4중의 경찰병력에 둘러싸인채 고독한 일정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쟁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것이 단순한 반미항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는데 있으며 또 그것이 광범위한 대중이 동참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가열차게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쟁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라면서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이남 민중의 의식영역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천국이였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세상에 다시없는 미국의 지옥으로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제 더이상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지배의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폐간 요구 성명

외국어대 총학생회

외국어대 총학생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은 조선일보창간 자체를 불행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진작 폐간됐어야 할 신문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치욕이라면서 조선일보의 역사는 철저히 친일과 독재찬양, 왜곡보도의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일제강점시기 황국신민화에 가장 앞장섰던 신문인 조선일보가 최근 경산대 교수들을 비롯해 저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스스로 좌파로 몰아 붙여 마녕사냥을 기도했으며 심지어 돈을 받고 안기부의 수사문을 대필해주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은데 대해 폭로하고 조선일보야말로 사회의 민주주의에 방해되는 ≪공공의 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명은 지난 1월 30일에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전민중의 이름으로 조선일보가 반세기동안 보여온 언론행태에 대해 반민족성, 반민주성, 반통일성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린데 언급하면서 올해가 조선일보폐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공격준비 지시에 대한 각계의 반향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미국이 이북 등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미국방부의 비밀보고서는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핵공격계획은 인류를 핵전쟁의 희생물로 지구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광신적인 발상이다.

미국이 이북 등 특정한 나라들에 핵공격을 가한다면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미국도 핵공격을 받아 잿더미로 되고 말것이다. 이는 말그대로 자살행위이다.

인류를 멸살시키려는 무서운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부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미친개는 때려잡아야 한다. 핵광신자 부시는 마땅히 제거돼야한다.≫

또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시가 이북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은 우리 남북 민중전체에 대한 핵공격을 하려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핵전쟁에 대비한 비밀정부를 구성해 가동시키는 한편 비핵국가들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한 가운데 특정한 나라들을 지명하면서 핵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어 전방에까지 나가 돌아친 것이라든지 이달말에 두개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통합해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다.

그것이 그대로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부시의 이같은 광신적인 전쟁책동으로 인해 이 땅에는 지금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인류를 멸살시키려는 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1일~12일

이번엔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신은경씨 얘기 주시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재계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노동법개악안의 철회를 주장했고 비정규직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는 현대중공업 등 대형노조를 포함해 전국의 170여개 사업장들에서 수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악하려는 노동법에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주40시간근무제도입에 관해서는 일절 반응조차 없고 근로자의 휴일, 휴가특수와 같은 노동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악법조항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법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보호수단을 강구하며 또 노동쟁의나 노동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노동자의 권위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바로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덕업주를 보호하고 그의 증식을 위한 법으로 되고 있어 그 가치가 사실상 전도되어 있어요. 그건 이 땅의 노동법이 **의 **때마다 노동자의 대량해고, 비정규직증대, 후생복리후퇴를 비롯해서 노동강도, 노동통제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희생을 목적으로 재개악되어온 사실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는 이 땅의 노동관계법을 두고 반노동자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노동법개악안도 노동자를 사람으로가 아니라 돈버는 수단으로, 말하는 기계로 치부하는 관계당국과 악덕업주들에 의해 더욱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악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1300만 노동자대중은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모두 분기해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말살하는 현행 노동법상의 온갖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원칙에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주40시간노동, 8시간 이상의 연장노동금지 등 최고노동시간의 설정을 통한 노동시간의 제재,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지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 노동시간단축때와 쟁의기간중 생활수당저해금지, 직업병 빛 산재방지대책과 보상지정, 부당해고방지와 실업수당제의 실시 등을 법적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삽입해야한다는 거예요. 특히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특별조항들을 첨부해야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대중은 이와 같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법적 보호조항들과 함께 노동법이 철저히 노동자들의 민주민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그것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정확히 규정돼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본연의 사명이고 고유한 기능의 하나인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건 물론 노동자들 자율위에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며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노조설립의 자유, 노동자와 노조가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가 법적으로 찍혀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우리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업주들이 무제한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적으로 더러운 유착관계를 맺어온 권력은 우리 노동자대중의 이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300만 우리 노동자들과 그 가족모두가 분기해 이번 노동법개악안을 철회시키고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노동법문제의 실제적 주인도 우리 노동자대중이고 노동법개정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름아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대중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법개악 철회투쟁에서 권력과 자본에 격노한 노동자투쟁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그 이름 불러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1일~12일

한총련은 무엇으로 그렇듯 강할까요.

그건 우리 청년학생들의 끝없는 신뢰와 각계 민중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때문이죠.

한총련을 뜻해 부르는 이름들에 그 신뢰, 그 지지, 그 성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경기대 김모씨의 글 ≪한총련 그 이름 불러≫ 들어보며 한총련의 일원이 된 자긍심 다시금 새겨봅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을 ≪구국의 강철대오≫, ≪불패의 애국대오≫, ≪백만의 자주대오≫라 부르며 사랑한다.

새겨보면 자주, 민주, 통일열기로 끓어번지는 이 땅에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단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 한총련과 같이 그렇듯 긍지높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투쟁단체는 없는줄 안다.

그래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자기의 조직을 사랑하며 자칭하여 부르는 이름이 아닌가.

그 이름들은 투쟁으로 점철되고 승리로 수놓아진 한총련의 헌신의 자국, 자주, 민주, 통일운동사에 기념비처럼 빛을 뿌리는 한총련의 업적을 떠올려보며 사랑으로 부르고 고무로 부르는 민중의 값높은 표창이다.

지난 2월 부시방한을 반대하여 한총련이 벌인 모든 투쟁들은 그 불굴의 위상을 각계 민중의 가슴속에 더욱 뚜렷이 각인시켜주는 계기로 되었다.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악의 축≫론을 떠벌인 부시, 그의 침략정책을 현시대에서 구현해보려 방한하는 부시를 반대해 부시방한저지선봉대를 묶고 민중을 반미항전에로 힘차게 궐기시킨 것이 누구였던가. 그들은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우리 한총련이였다.

사람들은 투쟁의 거리에 힘차게 나부끼는 한총련 깃발에서 자주로 높뛰고 통일로 뜨거운 이 땅의 숨결을 새겨안았다.

≪한총련진군가≫ 함께 부르며 반미기운을 북돋았고 싸우는 한총련, 통일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한총련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한총련 그이름 불러 ≪강철대오≫, ≪애국대오≫, ≪자주대오≫라 찬양해마지 않은 것이다.

지나온 길 되돌아보고 걸어갈 길 새겨보는 열혈의 가슴들에 심장을 바쳐 아까움 없을 운명의 전부로 안겨오는 한총련, 그와 더불어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제 더 얼마나 멀고 험한 시련의 강하를 헤쳐야 하는가.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웃으며 헤쳐나갈때 ≪한총련≫ 그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 땅의 열혈 청춘들은 더욱 신들메를 조이며 새로운 투쟁의지로 가슴들을 불태우고 있다.

≪구국의 강철대오≫, ≪불패의 애국대오≫, ≪백만의 자주대오≫ 아니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며 민중의 지지와 성원속에 긍지 높을 한총련의 내일을 위하여!

정치문맹자 이회창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0일~12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국의 소리≫방송의 ≪오늘의 연단≫을 듣고 계십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잘 아는 김모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회창에겐 정치인다운, 지성인다운 면모는 꼬물만치도 찾아볼 수 없고 그에게서는 개망나니, 정치깡패의 기질만이 물씬물씬 풍긴다고 그럽니다.

이회창이 독설을 내뱉을때면 가슴이 섬찟섬찟하다는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회창이 대통령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정치무식쟁이, 정치깡패가 대통령꿈을 꾼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할겁니다.

≪정치문맹자 이회창≫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최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올해에 어떻게해서든지 대권욕을 이뤄보기위해서 발악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치문맹자라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김현규 : 이회창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낙제생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인데요. 최근에 와서 그것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은 부시의 한국행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에 대해 별의별 악담을 다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는 한국행각시기에도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또다시 떠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망언에 대해 세계가 비난하고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으며 미국내에서까지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고위장관들, 미공화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회창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시의 망발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라느니 북이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느니 뭐니하며 주제넘는 소리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지금 반미감정, 반부시기운이 어느 정도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걸 식별하고 처신을 했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사고능력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건 이회창이 대미추종을 하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험담을 하면서 동족을 걸고드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이고 초보적인 정치감각도 없는 인간추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쓸개빠진 소리를 한 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얼마전 미국을 행각했을 때에도 이회창은 미국 호전광들을 찾아가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북의 무력을 휴전선 일대에서 후퇴배치해야한다느니 핵개발 저지니 뭐니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등장했을 때에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한나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앞발을 치며 쾌재를 올렸습니다. 또 온 인류가 반대배격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유독 이회창은 적극 지지해 나섰습니다.

이회창은 바로 이런 자이기에 지난해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국이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며 외교적 실책이라느니 망신이라느니 하며 미국의 대리인처럼 야단법석했는가 하면 기회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고창하는 망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도 이회창은 민족민중의 존엄과 이익을 미국침략자들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추악한 매국역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 우리 민중은 물론 한나라당내에서까지 반이회창기운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닌데요. 원래 이회창은 일찍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자로써 무슨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정치비전도 없는 정치간상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몇해되지만 그에게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 일본인 기자가 이회창에게 ≪한나라당은 개혁을 주장하는가, 보수를 주장하는가≫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였어요.

이회창은 그 일본인 기자에게 ≪한나라당은 개혁적 보수를 주장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속에서 폭소가 터졌고 이회창의 심복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퍼져 큰 웃음거리가 됐죠.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핵심임원들까지 보수는 보수고 개혁은 개혁인데 그것을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회창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그게 하도 보기 딱해서 근간에는 이회창 심복들이 이회창의 정치이념을 실용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릴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무근거한 억지주장입니다. 그는 남을 물어뜯는 것만 할줄 알았지 방법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험담꾼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나라당내의 어디에서나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출신의 한 전직의원도 ≪이회창은 여야 노선갈등때마다 버티기만 했지 한번도 자기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나라당의 당직을 지낸바 있는 그는 ≪내가 있는 4년동안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정책적 대안과 이념적 지향은 무엇이였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항상 비판만 있었지 이회창이 자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비판만 할줄 알지 자기의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에게서 실망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라고 말했고 한국의 보수언론들까지도 이회창을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 총재≫, ≪국정엔 협조않고 정쟁만 일삼는 자≫, ≪국가경영비전이 없는 정치인≫으로 낙인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가 이회창의 정치행태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탈당한 것도 그의 정치무지와 크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회창은 어떤 정치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언어구사까지 매우 졸속하고 저열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그는 정치적 언어구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정잡배들도 무색케하는 끔찍한 말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시기 기자들에게 한 폭언은 그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회창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두명의 기자들을 지목하면서 ≪너희들 씨를 말려버리겠어. 창자를 뽑아버릴꺼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말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회창 심복들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회창의 험한 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지난 총선시기에 4월초 제주시청앞 정당연설에서도 ≪이 정권을 도끼로 내리찍자.≫는 폭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창자론≫, ≪씨말리기론≫에 이어 ≪도끼론≫까지 등장했던 겁니다.

사회자 :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에게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정치인, 야당 총재라는 이회창이 상식이하의 험담을 망탕 줴치고 있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회창의 실언이 아니라 체질화됐다는데 있어요.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이 지금 화해, 단합하고 통일해야할 북의 형제들을 걸고들면서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는 것도 그의 체질화된 독사근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이 대권야망까지 품고 날뛰고 있으니 정말 분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죠.

사회자 : 옳습니다. 이회창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친미사대매국역적일뿐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협잡꾼이고 모리간상배입니다. 이런 추악한 인간쓰레기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죠. 각계 민중은 미국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비열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대권욕을 채워보려는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야 할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무식쟁이, 야심가가 권좌에 앉으면 정치가 엉망이 되리라는 걸 너무도 잘알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2일

태양절을 맞으며 로동자예술축전진행

조선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전국로동자예술축전이 진행되고 있다.

축전참가자들은 로동계급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고 참된 삶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고 있다.

각도들에서 성악, 무용, 화술, 기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전무대들에서 참가자들은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펼쳐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려는 로동계급의 신념과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반영한 다채로운 작품들도 잘 보여 주고 있다.

축전에서 당선된 종목들은 3월 하순경부터 평양에서 중앙경연에 참가한다.

4월 초부터는 중앙로동자문화회관에서 종합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전창철의 반신상에 화환 진정

공산주의혁명투사 전창철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11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전창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일군들, 유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태양절기념준비위 민주꽁고에서 결성

태양절기념 민주꽁고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 민주꽁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태양절은 인류공동의 명절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 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토의결정되였다.

부쉬의 ≪악의 축≫ 발언비난 세계사회계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세계사회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월 15일 꾸바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사회는 조선과 이라크, 이란에 대한 미국정부의 무근거한 비난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현 미행정부의 수법이라고, 미국의 위협은 엄중한 충돌을 야기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상 이고리 이와노브는 2월 15일 프랑스신문 ≪피가로≫와의 회견에서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것을 ≪랭전의 딱지≫로 평가하였다.

에스빠냐수상 아쓰나르는 기자회견에서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묘사한 부쉬의 인식과 거리를 둘 자세를 표명하였다.

도이췰란드외무상은 ≪동맹국은 위성국이 아니다.≫라고 비난하였으며 프랑스외무상은 국제적인 반테로련합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여 그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기초로 결코 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2월 17일 핀란드와 뛰르끼예 외무상들도 이른바 ≪악의 축≫교리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타격계획을 반대하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2월 9일부는 미국은 조선,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한 부쉬의 발언과 관련하여 우방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신문 ≪랴스마이 캄보쟈≫ 3월 1일부는 부쉬의 ≪악의 축≫발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그 목적은 미국이 궁지에 빠진 저들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이밖에 일본의 ≪마이니찌신붕≫, 이따르－따쓰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도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론에 대하여 세계가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의 통일 지지 수리아정부

4일 수리아정부수상 무함마드 무스타파 미로가 인민회의 회의에서 정부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강령에는 ≪수리아는 대화와 평화적방법에 의한 조선인민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여 있다.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로의 왕초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이 조선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한 미국대통령의 망발을 규탄하고 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누엘 페르난데스 플로레스는 국제테로의 ≪왕초≫인 부쉬가 세계제패를 추구하면서 지껄인 조선을 반대하는 전쟁포고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인민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에 대처하여 싸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미로슬라브 그레베니체끄는 미국이 조선을 그 무슨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한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중의 하나이라고 지적하였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 하르유는 미국은 사실과 맞지도 않게 구실을 부여 자주적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행정부와 부쉬대통령이 조선을 ≪불량배국가≫로, ≪테로지원국가≫로 지명한 것은 평화적국가에 대한 란폭한 모욕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스웨리예맑스－레닌주의공산당(혁명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데르스 칼쏜은 미제가 강권을 행사하는 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사회주의와 자주위업을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는 미제는 영웅적조선인민이 추켜 든 사회주의기치가 피압박인민들을 각성시키며 계속 빛을 뿌리고 있는데 대하여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미제는 조선의 군사력앞에서는 저들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볼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마르꼬스 도미츠와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글라디스 마린 밀리에도 부쉬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서울의 ≪문화방송≫에 의하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인사 988명이 7일 서울에서 당국이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는것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여 로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발전소를 팔아 넘기는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여 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합의≫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핵공격계획에 대응조치 취한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국방성에 적어도 7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소형핵무기들을 제작할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월 8일 미국회에 제출된 국방성의 기밀보고서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데 대해 지적되였으며 핵무기가 사용될수 있는 3가지 류형의 상황도 언급되였다.

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서명한 이 보고서는 현재 미전략사령부가 핵전쟁계획을 준비하는데 리용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우리 행성과 인류를 핵참화에 몰아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 섰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또한 부쉬행정부의 등장을 전후하여 미국의 강경매파들속에서 랭전을 복귀하려는 호전적경향이 끊임없이 강화된것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였다는것을 립증해 준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세계적범위에서의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정치군사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는 반인륜적행위이다.

미국이 지난 세기 중엽 원자탄을 개발하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이미 패전한것이나 다름없는 일본을 대상으로 그것을 처음 사용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 실시하여 온 랭전정책수행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핵공갈정책이였다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력대행정부들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여 저들의 핵정책을 표방함에 있어서 미국의 핵무기가 전쟁억제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오늘의 부쉬행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핵무기와 관련한 지난 시기의 거치장스러운 외교적공약에서 벗어나 저들의 일방적판단에 따라 특정한 나라들의 임의의 대상을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범죄적기도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핵공격대상인 7개 나라에 우리 공화국을 포함시킨데 대하여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직접 공공연하게 위협하여 나선 오늘의 정치군사적정세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노력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하여 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임의의 령토를 일본의 히로시마처럼 생각하고 핵공격을 가하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미국의 핵광신자들이 우리에게 핵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핵참화속에서의 미국의 파멸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

공동사설 해설 - 주체91 1월 29일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인민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군력에 의해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이 키운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조직된 전투대오입니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는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백두령장들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주체위업의 개척과 전진의 전 로정에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의 위력을 떨쳐 온 백두산혁명강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오시는 나날 언제나 선군의 기치밑에 무장대오를 앞세우고 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열어 오시였다.

혁명의 어느 시기에나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는 총 쥔 무장대오가 철벽의 성새를 이루고 있었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초선들에도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인 군대가 서 있었다.

조선혁명에서 우리 군대는 언제나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싸운 결사대였고 계급투쟁의 혈로를 열어 나간 기수였으며 전진하는 대오에 불굴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한 전위부대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총대를 앞세우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시는 희세의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방식을 제시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 온것이 우리 인민군대이다.

혁명의 붉은기,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휘날리며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세운 불멸의 위훈은 주체혁명의 년대기에 긍지높이 새겨 져 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 인민군대처럼 무적의 령장들의 슬하에서 자라나 백승을 떨치는 군대, 혁명전쟁이나 조국보위의 임무만이 아니라 혁명의 강력한 기둥, 주력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 온 그런 군대는 있어 본적이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완수된다는 확신에 넘쳐 있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려는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수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총대중시사상에는 제국주의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혁명투쟁의 철리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총대를 틀어 쥐고 강화하며 그 위력으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치체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맹세가 반영되여 있다.

총대를 틀어 쥐고 끝까지 가야 할 주체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들고 구현해 나가야 할 정치방식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이며 들고 나가야 할 구호는 우리 군대제일주의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인민군대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사랑하고 원호하며 그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불패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강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떨치며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인민군대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혁명대오의 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군대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혁명대오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하는데서나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나 언제나 모범이 되고 어렵고 힘든 전선에서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일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드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우리 인민이 오랜 력사적과정의 실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든 신념의 구호, 투쟁의 구호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인민군대가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때 우리 군대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다져 지고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8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2일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진지를 철벽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한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장군님의 영도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것은 장군님께서 총대위에 조국의 운명과 사회주의가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군영도로 인민군대를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기수로, 돌격대로, 무적강군으로 키우셨으며 우리 공화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키우는데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1990년대 조성된 정세는 혁명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들어와 이전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사회주의 집권당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주체 여기서도 특히 그 핵심부대인 혁명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지 못한데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해서 당과 혁명,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가 당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반혁명세력에게 총부리를 내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계급의 혁명무력 건설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비극이였고 수치였습니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이전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더욱이 우리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이 어버이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조선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보루를 허물어보려고 획책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군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안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수령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지닌 백절불굴의 혁명전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혁명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되자면 모든 장병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해야 합니다. 혁명군대가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한다는 것은 혁명의 근본원리이고 이치인 동시에 역사가 남긴 피의 교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전군을 위대한 수령님의 군영도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군대안에 혁명사적지, 혁명사적 교양실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의 새역사를 개척하시는 주체84(1995년) 정초부터 어버이 수령님께서 생전에 현지지도하신 부대와 구분대들은 그 어디이건 다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다박솔중대와 감나무중대, 동해의 군항들을 찾으시어 수령님의 군건설 영도업적으로 군인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있게 벌릴 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군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친히 발기하시고 일꾼들에게 그 중요성을 깊이 깨우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5(1996) 3월 전선서부 대덕산초소를 찾으실 때였습니다 대덕산초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52(1963)년 2월 6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몸소 찾으시었던 뜻깊은 사적지였습니다. 그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생 눈길을 밝으시며 부대에 가시어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인민군대앞에 ≪일당백≫의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부대에서는 천연바위에 ≪일당백≫이라는 구호를 세우고 250톤이나 되는 화강석을 체취해다가 현지지도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를 성의껏 보존관리하면서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에 도착하시는 길로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지부터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천연바위에 쪼악박은 ≪일당백≫구호앞에 멈추시고 그것을 한동안 숭엄히 바라보시다가 대덕산은 위대한 수령님과 내가 현지지도한 역사적인 ≪일당백≫ 구호의 고향인 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사적비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수령님의 군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강군종합군관학교와 공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부대와 구분대들을 시찰하실 때마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을 찾으시어 혁명사적 교양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시며 사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를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또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따라배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주체85(1996) 1월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발기하시고 이 운동을 전 인민군적인 대중운동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은 전군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호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연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을 이끄시면서 장병들속에 7연대의 결사옹위정신의 기본 핵인 자기 영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심어주는데 기본을 두고 이를 위한 사상전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당조직들이 직접 정치사업의 주선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 가운데 인민군대안에 전례없이 높아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더욱 승화시키기 위하여 전군을 길영조형의 자폭영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길영조영웅은 주체81(1992) 12월 3일 조국의 푸른 하늘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화폭을 펼치고 장열한 최후를 마친 참된 충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길영조영웅은 견결한 조선의 영웅이라고 그가 발휘한 견결성, 희생성, 영웅성은 모든 군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정신도덕의 귀감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전군의 장병들 모두를 수령결사옹위의 충신으로 키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지도와 정력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인민군대안의 모든 부대들에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게 되었고 전군의 장병들 모두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억세게 준비되어 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으로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날이갈수록 첨예화되고 긴장해지는 정치정세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연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 3월과 4월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인민군대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신데 이어 주체85(1996) 4월 7일에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보다 튼튼히 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실 구상을 안으시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역사적인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일부일꾼들이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영도체계와 영군체계가 서로 병립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면서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당의 영군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다같이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로써 표현만 다를 뿐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군사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실현하는 것이 인민군대의 부대지휘관리원칙이라는 것을 뚜렷이 밝히시었습니다.

(13면에 계속)

김원웅의원 ≪한나라당 후보교체론≫ 제기

한나라당의 내분사태에 대한 이회창총재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절대 이 총재가 또 다시 당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회창 대세론은 이미 무너졌다≫며 ≪지난 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에 실패한 것은 한나라당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후보교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이회창총재는 비민주적 지도자, 협량한 포용력, 민족관, 역사관 의식 결여, 정치인으로서의 고뇌의 결여 등 문제가 많다≫며 ≪본선에서 제기될 온갖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걸러내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총재의 방일전 총재단회의에서 이회창총재를 중심으로 무조건 단결하자고 했는데 이는 집권을 포기하자는 것≫라며 ≪현재 총재단회의는 더 이상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측근 얘기는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회창총재 자신의 독선적 리더십이 문제≫라며 ≪당의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인적쇄신 대상에 이회창총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김덕룡의원 탈당 시사와 관련 ≪이인제 혼자 탈당했다면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 모든 경선주자들을 다 내보낸 상황에서 이인제의 경선불복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 김덕룡의원을 탈당으로 몰아가는 이회창총재의 리더십이 현 당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지난 12일 밤 개혁파 의원 5~6명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에도 국회 정치개혁모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는 ≪모인 의원들이 이회창총재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러나 아직은 때가 좋지 않아 함께 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이날 오후 4시 김덕룡 의원을 만나 당에 남아서 대선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합류하자고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경준 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3

공군대령 ≪외압≫ 육성녹음 공개

군사상 기밀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 공군대령의 변호인단과 부인 문모씨는 13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주장이 담긴 조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증언에서 조대령은 ≪최동진국방부획득실장에게 지난해 1월초 각 기종별 특성을 설명하면서 분석작업이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자, 최실장은 ≪만약에 최종기종 결정에서 F-15K가 선정이 안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이 아니냐≫고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조대령은 또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보고자료 작성 당시 최실장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F-15K에 성능이 없는 부분, 즉 통합전자전장비나 정보융합과 같은 기능 등이 없음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보기가 안좋으니 빼라고 지시해 그 내용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에게 보고 안됐다≫고 덧붙였다.

조대령은 ≪최실장은 이후 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하며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느냐. 중복성이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 내용을 재검토해서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동진국방부획득실장은 ≪작년 1월초면 내가 획득실장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아마 공군시험평가단과 첫 대면이었을 것≫이라며 ≪그 당시는 F-X사업이 급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고 상식으로 보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한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현재 기무사는 조대령의 금품수수를 뇌물로 단정하고 뇌물의 대가로 군사기밀을 누출했다고 몰아가고 특정사와의 연관성을 조작, 조대령의 순수한 동기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조대령 개인비리 사건과 F-X사업은 분리돼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조대령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또다른 육성 테이프와 추가 관련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2/03/13

(12면 이어집니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실현되고 당의 영군체계를 세우는 목적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철저히 세우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없는 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 인민군대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최고사령관에 집중시키고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날의 담화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사상적 순결성과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 동안에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대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영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써의 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일행위 진상규명 법제화 나서

법률추진단, 3~4월중 공청회 계획

지난 2월 28일 친일민족반역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민족정기의원모임)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섰다.

민족정기의원모임(회장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저녁 7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명단 발표 후 첫 모임을 갖고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법률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

법률추진단에는 3월13일 현재까지 두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희선, 김성호, 신기남, 임종석, 정장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의원,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이만열교수(숙명여대),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률추진단은 이 외에도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과 각계 인사의 동참을 계속 끌어낼 방침이다.

법률추진단의 핵심 목표는 국회나 행정부에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다. 이는 현재 활동중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정부 공식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친일민족반역자 청산문제는 역사적으로 새 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지난 명단발표 때 보였던 것처럼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일단 명단 발표로 일정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법률 제정 과정을 국민적 여론과 합의 속에 해나갈 계획이다.

서상섭의원은 ≪이 일은 여론의 힘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면서 ≪정치계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추진본부≫라도 구성해 친일파의 진상규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추진단은 단순히 법안을 만들어 상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일은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추진단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 바람직한 청산의 방향과 방법, 법률안의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3~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 작업에서 사법적인 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를 공식적인 역사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민간의 연구나 규명 노력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민간에서 추진중인 ≪친일인명사전≫에 국고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3

이북TV, CIA 보고서에 진실이 담겨 있다

이북 조선중앙TV는 12일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을 비롯한 ≪불량배국가≫ 딱지가 붙은 나라들로부터 미국 본토 50개주로 오는 미사일위협은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진실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 TV는 1월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 중앙정보국이 미 의회 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북한 미사일위협설≫을 꾸며낸 사실을 지적, 미국이 더이상 북한 미사일위협설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원래 미 중앙정보국으로 말하자면 저들의 불순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면 검은 것도 흰 것으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곧잘 만들어내는 모략의 명수≫라며 ≪이러한 미 중앙정보국이지만 더는 민심을 속일수 없어 미국을 위협하는 위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TV는 이어 ≪말하자면 미 중앙정보국에서 진실이 담겨진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미제에 의해 요란스레 광고되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위협설이 더이상 통할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TV는 끝으로 ≪지금은 레이건의 악명높은 별들의 전쟁(SDI) 계획으로 동서 냉전을 격화시켰던 80년대도 아니며 부시 1세가 힘의 오만성에 사로잡혀 페르시아만전쟁(걸프전)을 일으킨 90년대 초가 아니라 새 세기 21세기≫라며 ≪오늘 인류는 이미 미국의 힘의 정책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강진욱기자
연합뉴스 2002/03/13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 주거침입 ·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서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하거나 경찰서로 강제연행하는 일이 잇따랐다.

11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식으로 서울화력 조합원 8명을 협박해 일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진술서에 쓰도록 요구했고, 2명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문구를 쓰도록 재차 강요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쪽 간부에게 인계돼 복귀를 종용당했다.

이에 대해 수사2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원 10여 명도 ≪임의동행 아닌 임의동행≫과 진술서 강요 등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또 11일 밤 인천의 또다른 여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소속 경찰들은 회사쪽이 올 때까지 3시간을 끌며 여관을 나가지 않았다.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체포영장도 없이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수사2계 소속 경찰들은 사측 관계자들이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여의 시간을 끌며 여관에서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화력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화력소속 나정구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체포연행됐다.

김남훈변호사에 따르면, 부평경찰서에서는 회사쪽 사람을 불러놓고 조합원들에게 ≪복귀서약서를 써라. 아니면 계속 구속상태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두섭변호사는 ≪사업장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무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없이 가택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지역에서 발전노조 전승욱 남동조직국장을 찾겠다며 영장없이 20여 집을 수색했다. 이어 9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 각각 한 집을 수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인 부인과 처제가 단둘이 있던 평조합원의 집을 경찰이 수색을 한다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았다는 제보가 왔다고 발전노조 이병철 홍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시 영장요구 및 주거침입 신고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요구 △임의동행 거부 체포영장 요구 △강제연행시 복귀서 거부 등 대처방법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이주영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3/13

미국의 이라크 공격, 국제사회 반대 직면

이라크를 겨냥한 2단계 대테러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미 부시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체니 미 부통령은 중동 순방의 첫 국가인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계획에 지지를 얻지 못했다. 1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압둘라 국왕 관계자는 ≪이라크와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해결과 평화적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체니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 들어가 사찰이 ≪폭넓고 공개적이고 엄격하고 모든 곳 어느 때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원칙적 지지, 요르단 반대

이에 앞서 영국을 방문해 블레어수상과 같은 문제를 논의한 체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확대에 대한 원칙적 지지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블레어수상은 현재 자신의 집권여당인 노동당 의원들이 60여 명 서명한 이라크공격 반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국내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압둘라 국왕의 반대는 중동국가 순방을 시작하는 체니에게 미국의 군사공격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고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요르단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유일한 아랍국가이기 때문에 요르단국왕의 이런 입장은 2단계 대테러 전쟁을 위한 중동지역의 지지 확보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압둘라 국왕은 이에 앞에서 사우디의 한 신문과 회견에서 유엔이 국제문제의 유일한 해결 기구라고 지적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중단을 주장하였다.

한편, 9.11테러 발생 6개월을 기념한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은 테러에 반대해 싸우는 ≪모든 곳의 정부≫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연설에서 ≪나는 2단계 대테러전쟁에 관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모든 정부들이 세계평화와 자국을 위협하는 테러집단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무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부시의 연설은 1월 29일 ≪악의 축≫ 발언으로 나타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불안해 한 국가들을 안정시키고, 대테러전쟁에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시는 예멘이 대테러 훈련을 위해 100명의 요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테러작전 지역의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 반발

부시대통령이 지난 2월 하순 한-중-일 동북아 3국을 방문할 때 미 중앙정보국장은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을 비밀 방문하며 2단계 대테러작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는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 폭로된 ≪핵태세 보고서(NPR)≫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소형핵무기 개발 등이 밝혀져 러시아, 중국의 협력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 러시아, 중국은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이 아프간, 그루지야 등지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킬 계획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9.11테러 발생 6개월 이후에도 대테러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적어도 국제적 지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이 당시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몇 주전 아프간에서 알케에다 조직과의 전투에서 미군 50여 명이 사상된 것과 같은 일이 속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부시대통령은 5월 유럽을, 럼스펠드국방장관은 아시아를 각각 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신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6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서보혁기자
통일뉴스 2002/03/13

노동계 지방선거 참여 본격화

13일 두 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 지방선거에 조합원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후보단을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97년 대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실시하고 4.13총선에서는 기존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단 무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 기존 정당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후보단 공모와 관련해서는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되 별다른 이견의 소지가 없는 한 재선 도전 출마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구나 동일한 정당의 비례대표 출마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이나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최대 80~90명 정도의 조합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출마할 경우 정책개발 등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며 ≪최근 독자 세력화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추세인 만큼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2004년 총선에서는 독자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6월 지방선거에 조합원들을 출마시키기로 하고 최근 지역본부별로 후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무소속 또는 기존 정당 소속으로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는 달리 97년 대선이나 4.13총선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토록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논의중≫이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들을 출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대중조직, 합법적인 대중운동에 대하여 (1)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1호)

≪우리가 려길학우회를 류길학우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려길학우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바탕이 민족주의이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량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였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벽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마끔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래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로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로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로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일 종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무시하고 길림에 새로운 청년조직을 또 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었으며 학생청년들의 대렬을 분렬시킬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였다.

우리는 조선인려길학우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였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중국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였다.≫(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세기와 더불어≫ 제 1권)

≪강고한 변혁적인 대중조직을 축성하기 위해서는 대중단체들을 광범위한 군중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조직으로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원칙상 합법적인 조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대중조직들이 자기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 . .

대중조직들은 세째로 원칙상 합법적인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대중조직들은 원칙상 합법적 조직으로 건설하는 것은 대중조직 그 자체의 성격과 대중투쟁적 성격을 띄는 우리 변혁운동에 관련된 중요한 요구이다.

대중조직 건설은 원래 대중성을 띈다. 따라서 대중조직들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단체로 조직되어야 큰 제한을 받음이 없이 광범위한 군중을 조직에 결집할 수 있고, 그 자체의 활동도 자유롭게 벌여 나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 역시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변혁운동은 지금 새로운 대중투쟁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그의 급속한 확대발전을 요청받고 있다. 우리의 변혁투쟁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대중투쟁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담아 내기 위한 조직적 틀도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틀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이 대중조직 그 자체의 성격으로보나, 우리 변혁투쟁의 대중적 성격으로 보나 대중조직은 마땅히 원칙상 합법적인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 .

대중조직이 원칙상 합법적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대중조직이 일률적으로 합법적인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중단체는 해당시기에 조성된 구체적 정세와 조건에 따라 반합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조직으로 건설할 수 있고, 또 이 두 형태를 배합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단체 건설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공개적인 것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합법, 비합법의 개념을 단순히 →

광고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는 대학시절이기에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입생시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시절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신입생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기를 권고하는 교양서적들입니다. 신입생여러분들은 이 열 권의 양서를 정독함으로써 향후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낳은 걸출한 과학자 이승기박사의 생애와 인생관을 담담히 수록한 수필. 일제시기 헐벗은 우리 민중들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값싼 섬유를 개발하겠다고 다짐한 이승기박사. 그 애국적이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자세로 과학탐구에 정진하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특히 자연과학전공 대학생들의 필독서.

중국청소년들의 세계사 교과서. 이 책은 우리 고등학교교과서와는 차원이 다른 진보적 세계관의 세계역사서적으로서 신입생들은 이 책을 통하여 그간 제도교육, 입시교육으로 형성된 세계역사에 대한 편견과 단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연변동포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번역되어 표현이 정확하고 청소년용이라 이해하기도 쉽다. 중간중간 사진과 그림도 있다.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세계사 상식은 알고 있어야 . . .

법률적 차원의 개념 즉, 지배계급의 허용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수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배세력이 용인하는 법률적 합법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중에 의해 수용되고, 그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 합법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합법과 비합법의 개념도 객관적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민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그 개념을 파악하고 실천에 구현해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 .

우리의 조직운동에서는 법률적 합법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법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대중조직을 합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합법적 조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을 위한 합법적 조직이 아니라 변혁지향적인 조직을 위한 합법으로 되어야 한다. 부언하면 원칙상 양자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중성, 민주주의성, 합법성의 원칙,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사회자 : 오늘 학생운동대오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려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학도가 굳건한 단결을 실현해야하죠. 왜냐하면 한총련이야말로 시대와 민중의 지향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의 대표조직이기 때문이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한총련은 명실공히 학생운동의 사령탑, 백만학도의 결집체입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이 한총련을 겨레의 희망으로 찬양하며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조직적 결속의 구심체로써의 자기의 중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조직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특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학생운동단체들과 조직적 단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을 국민, 학생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걸맞는 올바른 투쟁전술과 방법들을 창출, 구사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사상이나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총련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단합된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조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구국의소리 2001 12 2 - 8)

≪올해 청년학생들은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합법적 공간을 통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공안당국은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탄압과 폭압의 도수를 높여 왔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총칼탄압과 회유기만에도 한총련을 고수하고 그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일층 강화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정초부터 몰아친 공안당국의 학생운동말살한파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렸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탈퇴를 종용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인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파쇼탄압과 회유기만책동이 끊기지 않고 자행됐다.

그런 탄압 속에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규씨,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 등 수많은 한총련대의원들과 애국학생들이 철창 속으로 끌려 갔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책동도 학생운동의 합법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는 꺾지 못했다.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한총련의 위상과 기개를 과시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난 2월1일부터 진행된 남총련소속 청년학생들의 단식농성과 5월2일에 발표된 한총련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중 그 어디서나 울려 나왔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정초부터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희세의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이와 함께 ≪집시법≫개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록금인상반대,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중지, 양심수석방 등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반민주적 행위와 제도적 장치들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화투쟁의 선봉대로서 불굴의 기개를 떨치며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지난 4월6일에는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6월3일에는 9기 한총련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것은 한총련을 고수하고 학생운동을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려는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애국적 의지와 결심을 남김없이 발휘한 애국적 장거라 하겠다.

. . .

지난 5월 3백1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총련합법화 및 한총련 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묶고 9기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한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을 보는 각계민중의 시각을 잘알 수 있다.≫(2001년 청년학생운동, 구국전선 2001 12 21)

≪새해에 민족민주운동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기본권쟁취투쟁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사상과 이념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통일논의와 애국적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대중을 울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구국전선 2002 1 1)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2)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그런데 민족의 단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중심의 작용 즉 구심력(求心力)에 의해 민족성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연하게 결속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민족대단결은 어떠한 구심력의 작용에 의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다.

어떠한 사회적 운동에서든지 단결을 산수적 결합이 아닌 사상의지적 통일을 의미한다. 민족대단결의 경우는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 민족성원들이 민족적 리념에 기초하여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단합되는 것을 뜻한다.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보다 우위에 놓이며 민족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리념이 제시될 때 민족성원들은 누구나 자기자신과 집단, 계급의 리익보다 민족의 리익을 앞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한 투쟁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의 리념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기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자주사상이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생명이 자주성이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리념은 민족공동의 리념이 될 수 없으며 민족의 모든 성원을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감화시키고 민족자주권의 수호를 대의명분으로 모두가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자주사상이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민족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가자면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한 민족자주사상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내려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바로 내세울 뿐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운동에서의 단합이든지 그것이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실무적 결합이 아닌 조직적 통일인것만큼 전민족대단결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력사는 민족공동의 리념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의 조직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지만 1927년 2월에 창립된 신간회(新幹會)가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달라도 민족자주권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합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불과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중요하게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투철한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항 굳게 결합시키며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갈만한 지도력량이 없었던 것이다.

민족대단결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민족의 령도자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민족자주사상을 지니고 각이한 계급, 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해나갈 특출한 능력과 수완 그리고 민족성원전체를 한품에 안아 보살피고 키우는 높은 덕망을 지닌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수령에 의해서만 민족성원들을 하나의 대오에 결집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령도자의 사상의 위대함, 지도능력의 비상함, 인품의 고결함은 광범한 대중에게 커다란 감화력, 친화력으로 되며 높은 권위를 지닐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수령의 권위는 그가 지니고있는 특출한 자질과 품격 그리고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업적과 높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족의 령도자가 지니는 권위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령도자가 제시한 향도리념(嚮導理念)의 진리성과 새활력, 그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의 위대성, 인품의 고결성에 의해 그 높이가 좌우되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폭과 심도는 다름아닌 어떠한 높이의 권위를 지닌 수령을 그 중심에 모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